

# 미쉐린, 초고성능 타이어 국내 공급

## 스포츠카용 판매량 3만개로 확대 ... 고성능 자동차 채용확대도 기대

글로벌 타이어 메이저인 미쉐린(Michelin)이 초고성능 타이어 신제품을 통해 국내 고급 타이어 시장 공략에 나섰다.

미쉐린코리아는 2월2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론칭 행사를 갖고 슈퍼카용 초고성능 타이어인 <Pilot Super Sport>의 국내 시판에 나섰다.

김보형 미쉐린코리아 사장은 “국내 스포츠카용 타이어 시장을 적극 공략해 이 부문 판매량을 2010년 1만개에서 2011년에는 3만개까지 끌어올리겠다”면서 “2011년 전체적으로 10% 이상의 매출 증가를 목표로 세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초고성능 타이어는 고속 주행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타이어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포츠카나 특수 제작 자동차에 주로 사용됐지만, 최근 고성능 자동차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미쉐린코리아 관계자는 “앞으로 5년간 초고성능 타이어 시장규모가 북미 43%, 유럽 30%, 중국 440%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신제품은 현재 200여종의 고성능 및 고출력 차량에 장착돼 스포츠형 타이어의 대명사가 된 Pilot Sports PS2의 후속 모델”이라며 “최고의 안전성과 핸들링으로 국내시장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소개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2/21>